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박 포 성

그날은 내가 공민증을 받던 날이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되어 공민증까지 받고보니 당장 어른이 다된것 같아 나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통채로 안은듯 부풀어올랐다. 어깨가 으쓱해져 공민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아버지가?...》

《오늘 공민증을 받는다지? 그래서 왔다.》

《아버지, 고마워요.》

나는 아버지의 진정에 코마루가 시큰해졌다.

《내가 고마운게 아니라 널 사회의 한 성원으로 받아준 우리 당이 고맙고 나라가 고마운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를 이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으로 향하였다. 공원에는 갖가지 새들이 날아며 자기들의 언어로 즐겁게 지저귀고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받은 공민증을 내려다보더니 공원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한 아버지의 눈길은 멀리여로 가있었다. 이윽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도 생각날게다. 할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외국류학을 갔던 일을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는 어린시절부터 너무도 많이 들어온것이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한생토록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이름있는 과학자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류학갔던 사실이 나의 공민증과 무슨 련관이 있던 말인가.

나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를 그날여로 이끌어갔다.

화약내질은 고지에서 원썬들과의 싸움으로 날이 새고 밤이 지던 전호가에 어느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학생병사들을 대학으로 부른다는것이였다.

고지에서 싸우던 할아버지도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비록 총대신 펜을 잡았지만 할아버지는 원썬를 치는 심정으로 밤이나 낮이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뜻밖에도 외국류학을 가게 되었다.

류학기간에도 할아버지는 싸우는 전호가의 전우

들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배우고 또 배웠다.

드디어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그후 할아버지도 외국류학을 끝내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인 조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한사람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할아버지앞에 자기 나라의 수도시민증을 내놓으며 당신네 나라는 아직 폐허나 다름없는데 연구조건이 좋은 여기에 남아 함께 연구사업을 하자는것이였다.

한동안 그 나라의 수도시민증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무엇인가 꺼내놓았다. 몇겹으로 정히 싸갠것을 펼치니 그것은 우리의 공민증이였다.

《이게 뭘지 아오?》

할아버지는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공민증이요. 내가 전선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놈들의 폭격에 생을 마쳤소. 전선에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밤이나 낮이나 벌에 나가 살던 우리 어머니가 딸이요. 어머니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 내게 이걸 쥐여주면서 말씀하셨소. <이건 우리 나라 공민의 증표다. 이걸 잃으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 그러니 넌 공화국공민임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때 그 나라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수도시민증을 가지고 슬그머니 피리를 사렸다고 한다.

아버지는 깊숙이 머리를 숙인 나의 손을 꼭 잡더니 내 손에 든 공민증을 무겁게 들어올렸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공민이 된다는것은 자기 나라를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것이라고.》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온몸을 무겁게 해주었다.

조국이 없어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 나라 인민이 해방된 조국에서 나라의 몇몇한 주인이 되어 받아안았던 공민증.

나는 공민증을 가슴에 꼭 품어안았다. 얼마나 많은 선렬들의 피가 이 공민증에 스며있는것이냐.

나는 아버지에게 힘찬 어조로 말하였다.

《나도 이 나라의 공민된 긍지와 존엄을 안고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해 이 공민증을 조국의 무거운 안고 살겠어요.》